

광주시,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선도한다

‘무인 자율주행 언택트 실증’ 선정
무인 스토어·헬스케어 기술개발
스마트 가전 지원 공모에도 선정

광주시가 정부의 다양한 자율주행차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선도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실증 공모 사업’에 광주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29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10억원

을 투입해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 총괄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실증을 추진하는 것이다.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무인 상점과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인 상점은 자율주행 셔틀에 무인 상점 시스템과 결제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헬스케어는 심박수, 뇌전도(EEG), 안구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병원에 이송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아이비스, ㈜레보텍 등 15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증지역은 광주 빛그린산단, 평동산단, 노인건강타운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일반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자동차 기술 및 언택트 서비스 완성도 등을 높게 된다.

광주는 앞서 2019년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난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되는 등 자율주행차 실증 토대를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히 가속화됨에 따라 언택트 서비스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조기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가전산업 인프라 연계 고도화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금형산업진흥회, 공가산업진흥회가 참여하며, 해당 기관들은 2023년까지 스마트 가전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들의 낯은 장비를 제품 개발, 성능 시험, 시제품 제작, 신뢰성 시험 등에 맞는 것으로 개선하거나 새로 구축한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발, 시험 제작, 시험, 보완,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기술 지원을 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남도, 5000억원 투입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올 해 5000억여원을 들여 4개 전략 91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개최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의 후속대책으로 2021년 제1차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남도 에너지, 산업, 보건, 농축수산, 해양, 환경 분야 실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실천 추진상황 및 2021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전남도는 올 해 전략별로 청정에너지에 26개 사업, 청정산업 18개 사업, 청정생활 24개 사업, 청정산림 23개 사업 등 총 4개 전략 91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5187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131만t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새로운 관광산업 창업 지원 전남도, 27명 최근 선발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청장년들이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관광 신산업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될 미래 지향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무장한 관광산업 예비창업가 27명을 최근 선발했다. 자부담 능력과 시장경쟁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했다.

전남도는 창업 대상자의 관광 아이디어가 현실적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그룹 멘토링, 1대1 맞춤형 컨설팅, 관광홍보·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교육과정에서 창업사업의 구체화 발표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종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 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원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장 현안 논의하는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제6차 광주시 시장자문회의’의 총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김치,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한다

美 대형마트-광주김치업체 상담회
시, 선정 업체 홍보 등 맞춤형 지원

광주시가 명품 ‘광주김치’의 해외 수출 교두보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광주무역회관에서 미국 내 농수산물식품 유통 매장 운영사인 한남체인 및 킷레이딩(KHEE Trading)과 광주김치업체 간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행사에는 광주무역협회, 한남체인 구정만 대표, 킷레이딩 류돈희 대표, 광주김치업체 6개 등이 참여했다.

한남체인은 세계에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미국 내에 대형마트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달러 이상의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을 수입하는 등 광주·전남과도 인연이 깊은 업체다.

이번 상담회는 올해 1분기 한국산 김치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넘어서는 등 한류와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김치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선 광주김치업체의 제품을 품평하고 수출계획안 등을 논의했으며, 광주시는 이번 품평회

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체 2~3곳을 선정해 향후 추가 상담회를 개최해 수출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광주김치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및 시장개척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외 소비자들이 광주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청소년희망 플러스 정책 광주지역 청년단체, 개선 촉구

광주지역 청년단체가 기존 정책만을 나열했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시의 청년·청소년희망 플러스(+) 정책(광주일보 5월 14일자 3면)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14일 ‘대책 없는 청년대책 발표, 실망만 키워’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광주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희망보다는 실망감을 더 안겨주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진행하는 ‘코로나19 피해조사’ 단 1개 뿐이고, 그 외 사업은 대부분 작년에 계획한 사업이거나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것들”이라며 “기존 사업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발표한 것은, 희망대책이 아닌 ‘조삼모사’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에 지난해부터 요구했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장기미취업, 니트 상태 청년을 위한 긴급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빠른 코로나19 청년 피해조사 ▲미취업 청년수당, 청년교통수당 규모 확대 ▲코로나19 청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및 공청회 ▲신속하고 안정적 소통을 위한 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년 전국체전 상징물 전남도, 7월 15일까지 공모

전남도가 2023년 10월 목포 등 22개 시군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사용될 대회 상징물을 오는 7월 15일까지 전 국민 대상 공모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5종 17점으로 ▲두 체전 통합 엠블럼 1점, 마스코트 1점, 구호 1점 ▲전국체전 포스터 2점, 표어 5점 ▲전국장애인체전 포스터 2점, 표어 5점이다. 응모 시 부문별 1인당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모 주제는 전남의 전통과 역사, 문화, 비전인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등 개최지인 전남의 브랜드 이미지와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의 스포츠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응모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당선작 시상 규모는 총 2300만원이다.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징물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5종 34점을 선정해 오는 9월 당선작 발표와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고시/공고’의 ‘2023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행만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특색있는 우수 상징물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